

전쟁준비 (여호수아 5:1-15)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말씀 받는 순간이다. 하나님 명령은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이들이 악하다. 그래서 4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내용이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3가지를 하라고 하신다. 첫째가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다. 전쟁준비를 하려면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항상 그렇지만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한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답이다. 우리도 오늘 진짜 답이 나기 바란다.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 문이 열린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면 그 것으로 끝이다. 전도문, 선교문이 열리면 금상첨화이다. 언약을 잡으면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언약을 잡아야 한다. 전쟁 전에 너희가 할 일은 언약을 잡는 것이다. 이것이 메세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다른 것을 한게 아니라 약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약속대로 다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그 약속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렵다. 그런데 이 약속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정복하게 된다. 문제를 정복한다는 것이다. 인생을 정복한다. 놀리는게 아니고,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이 약속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수 있다. 24시간 구할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니까 우리 기도 안에 약속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이. 다른 많은 형태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을 잡고 내 기도가 그 약속이 되는 것이 근본이다. 이 약속을 쓴 것이 성경이다. 오늘도 그 약속중 하나를 썼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잡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할 때 해줬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무슨 약속인가? 원죄 때문에 그 저주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약속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다. 항상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다. 할례, 언약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그 표시이다. 신분이다. 유월절이 무엇인가? 그 어린양의 피, 약속의 피가 흑암세력을 꺾었다는 것이다. 그 때 그들이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 날 저녁,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나라를 깨버렸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다. 전쟁하기 전에 너는 이것을 먼저 해야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메세지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속 이야기 한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불가능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구절을 뽑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뽑으려면 창 3:15, 마 16:16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 말씀의 양대 산맥같은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이 두 말씀 속에 희생제사가 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언약이 양의 피제사이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하나님이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 세가지를 주셨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약속을 아우르는 것이다. 너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다. 너 평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유가 뭐가? 간단하다. 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열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놀라운 일이다. 하늘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스도를 매일 잡고 고백하면 하늘문이 매일 열릴 것이다.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한다. 약속하셨으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시간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각인해야 한다. 또 다시 고백하고 각인하고 각인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내 체질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꾸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간다.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 체질되어 문제만 일어나면 그리스도, 영적전쟁 하는 것이

다. 한참 생각해서 전쟁하는게 아니라 체질이다. 바로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성경구절이므로 좀더 마음을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 밖의 것을 하는 일이 없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것은 약속대로 하신다. 서쪽에서 절대 안 뜬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그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안하는 것도 없으시다. 약속 밖의 것을 하는것도 없고, 약속한 것을 안한것도 없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가? 약속만 잡고 있으면 된다. 죽으라고 약속을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잡아야 한다. 점심때도 잡고 저녁때도 잡는 것이다. 틈날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너 인생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냐? 할례를 해라.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니 마음에 할례를 해라. 니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육신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스도.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라. 그 언약의 피, 어린양을 잡아라.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 이것이 삶이다. 너는 인생전쟁을 어떻게 할거냐? 오늘 주신 답이다. 인생 중에 전쟁해야 할 것 많이 있다. 문제 많다는 말이다. 내 맘대로 안 풀리는거 많다는 말이다. 나는 인생이 왜 이래? 많다는 말이다. 답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 했는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오늘도 잡아라. 그러면 군대장관이 와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리해준다는 것이 오늘 메세지이다. 언약을 따라가라.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같은 이야기이다. 6장은 여러고성 무너지는 것이다. 눈 딱 감고 언약계만 따라가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속아서 자기가 하려고 한다. 나를 포함해서.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모 든 게 끝인데, 자꾸 자기가 가서 하려고 한다. 평생 그렇게 한다. 오늘부터 고쳐야 한다. 싹 다고치고 뒤집어버려야 한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 끝내버려야 한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답도 거기에 있다. 그게 뭐가?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했을 때 약속을 주셨다. 고백하면 된다. 질문했을 때 대답으로 그것을 한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너무 간단하다.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기도가 안되는 분들은 이거 써보는 것도 괜찮다. 기도 힘들다. 창세기 3:15, 마태복음 16:16-19 쓰는 것이다. 언약기도 쓰는 분은 아침에는 언약기도 쓰고 저녁에는 이것만 쓰는것도 괜찮다. 나는 언약기도 쓰지 9년 되었다. 나는 언약기도 쓰는데 한시간 정도 걸린다. 거기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세 번 쓴다. 근본문제 쓸 때 쓰고 중간에 쓰고, 답 쓸 때 쓴다. 왜 그렇게 하나면 나는 언약기도를 쓰는 이유가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베드로 고백했다. 고백 한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인생 너무나 간단하다. 그런데 그걸 안하도록 사단이 속여서 속는 것이다. 이것능 마 16:17절에 보면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된다는 것이다.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영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주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증인되어야 한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하나님은 어떤 증인을 찾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을 찾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리스도만 했는데, 모든 것을 정복했다면 그것이 바탕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면 이것 저것의 증인이다. 이것 말고, 그리스도 누렸더니 보좌의 축복이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내 인생이 시공간 초월이 되어 버렸다. 오직 그리스도,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다 이루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1. 전쟁준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말씀 드린대로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했고 유월절 지키라고 했다. 이것은 그 당시 언약의 핵심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었는데, 그 때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 감명깊었을 것이다. 6장에 들어가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전쟁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전쟁에는 짐승도 다 죽이고 값나가는 물건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사람 뿐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중대한 전쟁을 두고 훈련을 행하지 않고 할례, 유월절 지키라는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이다. 할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신분 회복이다. 유월절, 너 언제 저주에서 나왔어? 그 말아닌가? 니가 무슨 힘으로 그 저주에서 애굽을 깬느냐? 이 피 때문에 너는 재앙이 넘어갔잖아. 그리고 그 날 저녁에 내가 애굽을 완전히 깨버렸잖아. 이 피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확인하라.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언약전쟁이다. 심판하는 전쟁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전쟁이므로 싹 다 죽이는 것이다. 심판이다.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니까. 이것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인가? 이것 답 안하면 그리스도가 크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앞으로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것이다. 이런 일은 없다. 전쟁 일어났다고 하면 다 이기는 것이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 이게 내 언약 전쟁이었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인생, 영적 전쟁인거, 답 안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답 날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가? 진짜 영적문제라고 생각 안되면 계속 해야 한다. 답이 나와 그렇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결정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실제로 칼로 싸웠다. 그러나 결과는 결정되어 있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쓴다. 그러나 이미 정해져있다. 승리. 우리는 안 망한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언약으로 안 살아서 그렇다. 이유는 그거 하나 뿐이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살면 무조건 정복한다. 그러니까 정복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약으로 사는가만 신경써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저주에서 해방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안되요 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죄 지어도 상관 없어. 그래도 나는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뻘대가 양심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뻘대는 승리한다. 뻘대되어서. 양심가는 스스로 죽는다. 자기가 안 믿어서. 왜 자기를 쳐다보나, 십자가를 믿어야지. 나를 쳐다보면 답이 나는가? 죽는 것이다. 십자가를 봐야 한다. 거기서 답이 나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일하는 것과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언약을 잡아라. 내가 먼저 가서 박살내버리겠다. 이게 유월절이다. 박살 내는 것만 생각하고 언약을 안 잡으면 자꾸 사단에게 당하게 된다. 딱 잡으라. 잘 안될 수 있다. 그래서 써보라는 것이다. 자꾸 심어야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절대로, 아무리 내가 언약하고 부족해도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 심어서 내가 체질되어야 한다. 영적 문제 다 날라가버리고 딱 문이 열려버리면 통과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우리의 저주의 근본을 이길수 있는 약속이다. 이 약속 없이는 우리의 저주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다. 니가 이 약속을 잡으면 니 인생의 저주의 근본은 무너뜨려주겠다. 그러면 여러 말 할 것 없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면 된다. 약속을 따라 살고 언약을 회복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라. 그게 언약의 삶인 것이다. 여하튼 한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것을 위해 준비

하라는 것은 할례와 유월절이었다. 잊지 말기 바란다. 안되면 써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어린양의 피 때문이다. 그날 바로의 장자도 다 죽었다.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었다. 그날 애굽 전역에 난리가 났을 거이다. 이미 9가지 재앙으로 망할만큼 망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끝까지 놔주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유월절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그 날 밤에 피를 발랐더니 대 역사가 일어났다. 이 유월절이 중요하다. 본문 10절에 이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다음날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다음날부터 만나 끊겼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땅에 먹을 거 있으니까 만나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너희가 들어가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둘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람들은 농사 안 지었지만 들어가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짓지 않은집, 파지 않은 우물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만나가 끊겼다. 이것이 광야 생활 끝났다는 것이다. 유월절에 나왔다. 그리고 유월절 지키는 날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유월절로 끝난다. 모든 날자는 하나님이 계획해서 유월절 날에 맞추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다. 강박해서 끝까지 잡고 있는데,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전체 백년, 이백년, 천년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하루 하루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이 약속의 피를 그 백성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유월절에다 맞춘 것이다. 그 약속의 피, 그것을 잡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피의 비밀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닫기 원하신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약속에 맞춰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속에 맞추까 하면 생각이 많아진다. 하나님 하고 마음이 통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령인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언약이 되어서 24시 이런 생각하기 쉽다. 다 맞는데, 그것은 앞으로 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할 것이 있다. 거기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오늘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시공간 초월을 24시간 있는데로 누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시공간 초월이 언약이 아니다. 언약을 잡은자가 누리는 비밀이다. 힘든게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다 생각될 수도 있다. 답을 딱 줘야 한다. 그 답이 그리스도이다. 오늘 구약성경인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라합의 이야기도 그리스도이다. 붉은 줄. 언약케를 따라가는데, 마른 땅을 건넜다. 언약. 이 전쟁을 이기는 비밀, 할례, 유월절,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이다.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기는 비밀, 언약. 우리 인생이 전쟁이다. 완전하고 확실하게 항상 반드시 이기는 비밀, 그게 그리스도이다. 이것 잡아야 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을 끝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왔다. 걱정 마라. 내가 전쟁하겠다. 이것은 니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너는 나 따라와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이다. 여기에 내 인생이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 주셨다. 니 평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약 잡아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 언약 평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천국 열쇠 아닌가? 당연히 인생의 열쇠는 되고도 남는 것이다. 내가 너의 열쇠야, 그 말 아닌가? 니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가 니 인생의 열쇠가 되겠다. 고백하고 다시 심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로마서 11: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 하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풍성하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2: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였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꺼내서 누리는 것이 누리이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것이 나온다. 지혜와 지식은 모든 응답과 역사를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이 언약되기 바란다. 영적 전쟁을 한다.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할례를, 그리고 유월절을 행해야 한다. 언약 회복해서 승리하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